광주시, 광산구 현안 '일방통행' …지역사회 불만 고조

자치구간 경계조정안·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등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추진

광주시가 광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부작용을 내면서 지역사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안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이 대표 사례로, 광주시가 광산구민의 뜻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일 광산구 주민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2018년부터 추진했던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최근 준비기획단 표결을 거쳐 '중폭 조정안'으로 결정됐다. 준비기획단의 '중폭조정안'은 첨단1·2동을 북구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 큰 골자로, 광산 주민들 사이에선 지역 균형 발전 등 주민 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조정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중폭조정안'을 살펴보면, 광산구 인구는 7만 2000여명이 줄어든 반면 광주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북구의 인구는 5300여명이 늘어나 인구 편차가 전국 광역시 평균이 17.7%를 초과한 18.6%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북구로 편입되는 첨단 1·2동 지역공동체의 역사성과 정통성, 사회문화적 동질성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어 해당 주민의 혼란만 자초하는 등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산구 주민들 사이에선 이번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하는 등 자치구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만큼 광주권 전체를 대상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광산구의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이번 경계조정을 지역 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특정 구에서 몇 개 동을 떼어내 다른 구에 붙이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광주권 전체를 대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광주시의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한 '첨단 1·2동의 북구 편입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광산구 정치권도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민형배(광산을) 의원은 최근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이 지난달 19일 6차 회의에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채택한 중폭 개편안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총 42명의 준비기획단 중 29명만이 표결에 참석했고, 3차례 투표 끝에 겨우 17명이 찬성했다. 기획단 전체의 절반도 찬성하지 않은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광산구 출신 시의원을 비롯한 구의원들은 첨단지구 1·2·3지구를 묶어 (가칭)첨단구의 신설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성 없는 중폭조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대안제시에 나서고 있다.

광산구 주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최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동 준공업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번지고 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평동 준공업지역 139만여㎡(42만평)를 개발한다는 광주시의 개발계획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광산 지역사회의 주장이다.

평동 준공업지역 거주 주민들은 "1998년 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다 보니 산단에 입주하지 못한 고물상, 폐기물처리업체 등 혐오시설만이 들어서 20년 넘도록 고통을 받고 살아왔다"며 "이번 개발 사업에 앞서 원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 등 이주 대책부터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광산지역민들은 15년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광주시는 2005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돈 되는 골프장만 짓고 정작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자 선정조차 하지 못한 채 관련 업체들과 법적 다툼만 이어가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지역 첫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관 선정

복지부장관 표창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전남 공공기관 최초로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30일 공동으로 개최한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광주도시공사를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으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

지난해 처음 도입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꾸준히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에서 274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인정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광주도시공사 등 9개 기관은 우수 인정기업으로 뽑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광주도시공사는 사회공헌 브랜드 'The 모아 The 배려'를 슬로건으로,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을 위한 사랑의 쌀나눔, 세탁봉사, 어르신 장수사진, 5·18 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노경수 사장은 "중장기 경영목표를 효율성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전 세대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출생·노후·미래세대에 이르는 5개년 종합계획
5개 전략 25개 중점과제 내년 심의 거쳐 추진

광주시는 "최근 저출산율과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감소에 따라 혁신적이고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비전으로 지난 5월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어 용역결과를 토대로 광주 실정에 맞는 5개 전략, 25개 중점과제, 100대 실천과제를 발굴했다.

주요내용은 ▲출생, 보육에 대한 공공성 확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중·노년에게 고용연장과 안전보장 ▲미래세대에게 인공지능 사업과 마을공동체 조성 등으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인구정책을 설계했다.

5개 핵심 추진전략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청년이 행복하게 일하는 활기찬 광주 ▲지역경제와 미래경제를 선도하는 광주 ▲든든 중년과 건강 노년의 알찬 광주 ▲인구구조 변화에 준비하는 광주 등으로 출산, 보육, 일자리, 경제,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정책은 내년 1월 중 인구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출산양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인구 감소 원인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일자리 부족, 교육·주거문제, 지역경제 악화 등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며 "인구 요인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 인구진단 추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종합·근본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중기 제품 구입하고 선물 받자

광산구, 11일까지 우체국쇼핑몰

광주 광산구는 "오는 11일까지 지역기업 제품을 구입하면 추첨을 통해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하는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체국쇼핑몰 '광산구브랜드관'에서 지역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영수증 사진을 해시태그 '#광산구브랜드관'과 함께 자신의 SNS에 올리면 무작위 추첨으로 100명에게 5만원권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한다.

광산구브랜드관은 지난 4월 광산구와 한국우편산업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등을 목표로 개설했으며, 현재 26개 광산구 업체가 입점해 120여개의 상품을 판매 중이다. 판매제품도 우리밀 핫도그, 커피, 초콜릿, 디퓨저, 캐리어 등 다양하다.

이벤트 추첨 결과 발표는 다음달 23일 광산구블로그에 공개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 자치구 3위

인적자원 개발·도시 인프라 구축 등 경영자원 부문 성과 인정

광주 광산구는 "'2020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CI)' 경영자원 부문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지역 경쟁력 측정 등을 위해 해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자체·정부부처·공공기관의 공식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해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과 종합경쟁력 부문으로 나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광산구는 인적자원 개발과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측정하는 경영자원 부문에서 183.39점으로 전국 자치구 중 3위, 종합경쟁력 부문은 563.29점으로 전국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 부문 모두 광주 자치구만 놓고 보면 1위에 해당한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지역사회가 협업으로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코로나 일상시대에도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를 일궈내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주시,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량 통행료 감면 1년 연장

광주시는 "올해 연말 만료되는 제2순환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 50%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차의 보급·확대를 위한 조치로 지난 27일 시의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감면 대상차량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이면서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차다.

광주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광주시는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예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붉음이 제 몸을 휜다 김 유 석
오렌지 나무를 해답으로 칠게요 최 지 하
새, 블랙박스 양 수 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 선 애
그녀의 의로움은 B형 - 新 글러브 중독자 마 경 덕
사과상자의 이설 전 다 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 혁 재
메타자본세콰이어 신전 강 대 선

* 7월 발간
김남수 시집 - 둥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정영주 시집